

익산, 중앙부처 공모사업 실적 '역대급'

상반기 국·도비 219억원 확보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준비 착착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와 전북도 주관의 공모사업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36개 사업, 국·도비 2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1건, 61억 원 대비 대폭 증가된 규모로 산업·경제·농업·관광·문화 등의 현안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산업·일자리 분야에 △도시 새마을사업(4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7억원),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10억원), △5G 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사업(10억원) 등을 투자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경제 산업에 대비

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축산 분야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70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30억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11억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3억원) 등을 추진해 지역소득 증대는 물론 안전하고 생산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한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생태체육시설(장애인체육관) 확충지원사업(95억원), △생태사회기반시설(지방문화원) 사업(25억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14억원),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4억원) 등에서 국비를 확보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힘을 계속

이다.

공모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효과가 큰 만큼 익산시는 올해 추진할 공모사업 목표를 50건, 국·도비 50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먼저 초기대응 단계로 매주 간부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모든 공모사업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은 응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체심사단계를 거쳐 불필요한 예산 소요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서 성과평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부서 및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북부권 건

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 대형 공모사업이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10조원의 재원을 5년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익산시는 일제감치 주요정책과제로 정하고 신청사 일원 등 최대 3개소(총사업비 500억 원) 선정을 목표로 컨설팅, 용역, 협약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사전 준비를 진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공모사업은 신청기관의 보유조건 뿐만 아니라 추진노력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또 하나의 예산확보 방안이다"며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동향을 사전에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역대 최대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광대학교 학교기업 원네이처가 학교기업 지원 사업 워크숍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원광대 학교기업 원네이처 학교기업 대표 우수사례 선정

취·창업 능력 배양, 특허기술 기반 제품개발 인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학교기업 원네이처가 실무 맞춤형 현장실습과 창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의 취·창업 능력을 배양하고, 특허기술 기반 제품 개발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교육부 주관 학교기업 지원 사업 워크숍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19 학교기업 지원 사업 워크숍은 전국 학교기업과 교육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원광대 원네이처는 교육 수료생들의 취·창업, 시제품의 제품화,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운영 성공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원네이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2500여 명의 학생에게 현장실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17년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교육부에서 인준하는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중·고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익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학교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발휘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수산물 유통 가공 현대화 시설 추진

냉동 냉장 처리시설 확충대 대형어선 위판 가능 전망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의 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군산시수협 수산물처리장사설을 지난 6월말 준공함에 따라 냉동 냉장 처리시설이 확충돼 대형어선 위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냉동 창고의 수용능력 포화도 타 지역에서 위판을 하던 어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처리장사설은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하며 지상 2층, 연면적 3,813㎡ 총 사업비 90억원(국비 27억, 시비 27억, 자부담 36억)을 투입해 건립됐다.

주요시설로는 동결시설, 냉동·냉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냉동 수산물용 최대 46톤, 냉장 수산물은 최대 4232톤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의 소규모 및 노후화에 따른 처리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활동을 벌여 사업을 확정했으며 지난 2018년 6월 착공, 오는 8월 경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산물 처리장사설의 건립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급과 생어기 수급 조절을 통해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옛 명성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또한 신선도 제고와 안정적 인 판로 확보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어가소득 증대와 유통질서 확립 등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물종합센터도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시는 노후화된 미관과 안정성 문제가 이어져온 수산물종합센터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125억원을 투입해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문화소통공간 '청숲' 개소

익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문화·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청년센터 '청숲'이 지난 19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들이 숨쉬는 공간, 활력과 힘의 공간, 소통과 교류의 공간"의 의미를 담아 건립한 '익산청년센터 청숲'은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364㎡/2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곳은 청년의 일자리정보 제공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상담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50석 규모의 다목적실, 스터디·회의실로 사용 가능한 20석 규모의 세미나실, 예비 취·창업 청년들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구성됐다.

'청숲'에서는 청년 일자리 안내·상담, 취업 역량 강화, 문화·소통·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공간 대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구직 청년들에게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 교육, 일자리 정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 성공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계획이다.

청숲은 시 직영으로 청년정책센터에 상주하며 평일 9~20시, 토요일 9~18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익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목적실과 세미나실은 온라인 대관 신청(iksdreamcard.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여름방학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함께 돌봄센터(기움돌 우리동네 돌봄교실) 이용시간을 오전까지 확대해 이중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학기 중에는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방학 기간 동안 오전 돌봄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기돼 이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돌봄 교사의 근무 시간을 변경하거나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확보했고 보드게임과 영화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공모 사업인 방

과 후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기 요리 체험 프로그램인 '뽕꾸는 요리 교실'도 편성돼 운영한다.

"뽕꾸는 요리 교실"은 매주 목요일 12시에 편성되며 아이들이 직접 요리해서 그 요리를 점심으로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여름방학 돌봄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익산=장인현 기자

군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오래된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오는 10월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시행조기로 전라북도 조례 발효일(7월 6일)에 맞춰 단속을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기에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6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관측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컨설팅업체와 전라북도 해당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추경에 서버구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